

독일어 운율구조에서 최소단어의 역할

유시택(충남대)

1. 서론

단어의 형태적인 구조와 운율구조의 불일치 때문에 운율형태론에서는 어근, 어간, 단어와 같은 형태적인 단위와는 별도로 (1)과 같은 수직적인 운율구조를 인정하고 있다 (vgl. McCarthy/Prince 1986).

(1) 운율의 수직구조

PhW	Phonologisches Wort
	.
Ft	Fuß
σ	Silbe
μ	Mora

이 수직구조에서 모든 운율단위는 자신의 바로 아래층의 한 개의 요소를 핵으로 가지게 된다. 즉 모든 운율단어 (phonologisches Wort 혹은 prosodisches Wort, 이하에서는 PhW로 약칭)는 한 개의 강세있는 음보 (Fuß, 이하에서는 영어의 foot의 약칭 Ft 로 표시)를 핵으로 가지며, 모든 음보는 한 개의 강세있는 음절을 핵으로 가지며, 모든 음절은 한 개의 모라를 핵으로 가지게 된다.

운율구조와 형태구조는 다음과 같은 제약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문법적인 단어 (grammatisches Wort)는 한 개의 음운단어가 되어야만 한다.

(2) GrW = PhW

한 개의 문법적인 단어는 한 개의 운율단어여야 한다.

(1)과 (2)를 종합하면 한 개의 문법적인 단어는 최소한 한 개의 강세있는 음절을 가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현상이 소위 최소단어 (minimales Wort) 현상이다. 최소단어 현상을 보다 정확히 정의하면, 한 개의 음보가 두 개의 모라를 가져야하거나 혹은 두 개의 음절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음보는 두 개의 모라를 가진 1음절이거나 각각 1개의 모라를 가진 2개의 음절은 가능하나, 한 개의 모라를 가진 1음절은 함량미달 (소위 degenerate foot)로 음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소단어 현상과 관련된 음보에 대한 조건을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vgl. Prince/Smolensky 1993, McCarthy/ Prince 1993)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보에 대한 이분지제약 (Foot-Binarity)을 통해 나타낸다.

(3) Ft-Bin

음보는 두 개의 모라 혹은 두 개의 음절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은 독일어의 여러 가지 음운현상들을 통해 최소단어와 관련된 (3)의 제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어의 음보는 음보의 핵이 왼쪽에 있는 강약음보(Trochäus-Fuß) 이므로 음보의 구조가 [LL], [H], [HL] (H= heavy syllable, L= light syllable)일때는 (3)의 제약을 지키나, [L]은 한 개의 모라를 가진 1음절 음보이므로 이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여기서 Ft-Bin 제약을 충족시키는 두가지 가능성중 (두개의 모라 혹은 두 개의 음절) 어떤 것을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독일어의 어근과 어간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일어의 주어휘부류인 명사, 형용사, 동사의 어근과 어간은 대개 1음절이나 2음절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이 최소단어가 되기위해서는 (3)의 제약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dick*과 같은 단어에서는 1음절 어근이 2개의 모라로 된 [H]-음보를 이루어 (3)의 제약을 충족시킴에 반해, *feige* 와 같은 단어에서는 1음절 어근인 *feig* 이 *dick* 에서와 마찬가지로 2개의 모라로 된 [H]음보를 이루어 (3)의 제약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Schwa 모음이 삽입되어 2음절 음보 [HL]를 만든다. 따라서 여기서는 왜 1음절 음보 [H], 즉 **feig* [falk] 로 실현될수 없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feige*에서 단어끝 Schwa를 의사접미사 (Pseudosuffix) 혹은 어간형성소 (stammbildendes Element)라는 이름으로 형태소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통의 접사화 과정에 의해 생겨난 단어(예: *Kind* +

isch → *kindisch*; 이하에서 형태소 경계는 +를 통해 표시))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Yu (2001c)가 보이듯이, 이런 분석은 어간말 Schwa 가 독일어의 최소단어에 대한 요구와 다른 음운제약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설명하지 못한다.

음보의 타입과 관련해서 설명되어야 할 또 한가지는 3음절로 이루어진 강약약 음보 (Daktylus-Fuß)이다. 명사의 복수형태를 살펴보면 *Abend - Abende*에서처럼 복수형태에서 이런 음보를 허용하는 경우와 *Thema - Themen (*Thema+en)*에서처럼 3음절 음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후자에서는 3음절 음보가 생기는 대신, 어간을 이루는 분절음의 일부가 탈락되는 절단현상 (Trunkierung)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명사 → 동사의 전환 (Konversion)에서도 Daktylus 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형태적과정에서 보이는 3음절 음보의 상이한 태도가 음보의 이분지제약과 다른 제약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밝힘으로써, 동일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규칙이론에 입각한 분석 (vgl. Wiese 1996)이나 선언문법 (deklarative Grammatik)에 입각한 분석(vgl. Neef 1997)이 가지고 있는 잉여성의 문제가 제거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은 이완된 단모음 (ungespannter kurzer Vokal)의 분포적 제약과 모음충돌에서 보이는 규칙성이 최소단어에 대한 요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장은 CVC 어근이 최소단어의 요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CVCV로 어근이 변하는 경우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전통적인 문법에서 어간말 V (= Schwa 음절)를 어간형성소 혹은 의사접미사로 보아 형태소 자격을 부여하나, 이런 분석은 V가 순수히 음운적인 요인에 존재하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4장은 Schwa 음절이 순수히 형태적인 요인에 의해 어기와 결합할 때, Schwa 음절의 음성적 실현 여부는 형태소를 실현해야 하는 제약과 다른 제약간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5장은 앞에서의 논의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다.

2.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적 제약

규칙을 기반으로 한 이론에서 음절화 규칙은 음절핵 (Nukleus) 생성후 먼저 음절머리 (Onset)를 만들고, 나중에 음절꼬리 (Koda)를 만드는 순서에 의해 모음사이

의 자음이 가능하면 음절머리가 되어야 하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 '음절머리 우선' 혹은 '음절머리 최대화' 원칙 (Onset-first principle 혹은 Onset maximization) 으로 알려져 있는 이 원칙은 그러나 VCV 혹은 VCCV (이하에서 V와 C는 각각 Vowel 과 Consonat를 나타낸다) 의 환경에서 첫째 모음이 이완된 단모음 일 때 문제를 일으킨다. 규칙이론의 음절머리 최대화원칙에 의하면 모음사이의 자음군이 음절머리를 이룰수만 있으면 언제나 음절머리가 된다.

따라서 어휘음운론에서처럼 어휘부가 여러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기저형태에서 음성형태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여러단계로 나누어져 일어나는 소위 다층어휘부 (Multi-Strata Lexikon)에서는, 어휘부의 도출과정내에서 첫째 모음이 이완된 단모음인 VCV 분절음 연속은 V.CV로 음절화 된다 (예: *Ecke* [ɛ.kə], 발음부호에서 점은 음절 경계를 표시함) (vgl. Giegerich 1985, Hall 1992).

그러나 단어강세와 관련하여 볼때 어휘부내의 도출과정에서 *Ecke* [ɛ.kə]에서처럼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치는 열린 음절을 허락하는 것은 단어강세에 대한 올바른 일반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모라로 이루어진 음절은, Féry (1997) 가 주장하듯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 (4) 독일어에서 1음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때에만 1개의 모라를 가지게 된다:
- a. 강세를 받지 않는다
 - b. 단어끝 음절이 아니다
 - c. Reim에 속하는 모든 분절음이 모라이다

Paprika, *Brutigam* 과 같은 단어들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 /i/는 강세를 받지 않고, 단어끝이 아니며, 모라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켜 각각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 이에 반해 *Veranda*와 같은 단어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은 두 개의 분절음이 각각 모라를 가지므로 한 개의 모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강세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오게 된다.

*Ecke*에서 첫째 음절이 위의 규칙이론에서처럼 열린음절이라면 모음 /ɛ/는 (4b)와 (4c)의 조건은 충족시키나 (4a)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완된 단모음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모라를 가져야 하므로, 결국 (4)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어휘 음운론에서는 단어강세규칙 또한 어휘부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Ecke* 가 첫음절에 강세를 받는다는 것은 V.CV로 음절구조에서 첫째 V가 강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음보의 핵은 두 개의 모라를 가져야 하므로, 이 사실에 부응하기 위해 [ɛ.kə]의 첫 번째 음절은 어휘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음성해석부분에서 두 개의 모라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ɛ.kə]에서 자음 [k]가 첫째 음절의 Koda 로 재음절화 되어 양음절성 [k]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단어강세 규칙의 입력부 (Input)를 이루는 음절구조 자체가 이미 강세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지키지 못하므로 (위의 (4)는 그런 전제조건인 일부이다), 결국 강세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음절구조로부터 강세를 도출해내는 것이 실패하는 중대한 이유는 규칙이론의 음절화규칙이 모음의 기저자질을 [tense]나 [long]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은 이완된 단모음이 어떻게 음절화되는가가 Ft-Bin의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한다 (vgl. Féry 1997).

Hall (1997)은 독일어에서 이완된 단모음은 단어 끝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약 (5)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중에서 이완된 단모음 /a/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Sofa* [zo:fa]에서처럼 단어끝의 /a/가 존재하므로). (6)의 데이터 (Hall 1997:109에서 인용)에서 보듯이 이완된 단모음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긴장된 장모음, 즉 [i: y: e: ø: u: o: a: ɛ:] 과 (6a) 긴장된 단모음 (6b)은 단어끝 위치에 나타난다. 데이터에서 음절앞의 ' 표시는 단어강세를 나타낸다.

(5) Lax Vowel Constraint: *[-tense, -low, -long]ᵂ

(6)	a.	Kakadu	[ka.ka.'du:]	Energie	[e.nɛr.'gi:]
		Büro	[by.'ro:]	Café	[ka.'fe:]
		Bö	[bø:]	Menü	[me.'ny:]
		Mama	[ma.'ma:]	zäh	[tsɛ:]
	b.	Mutti	['mʊti]		
		Konto	['kɔn.to]		
		Kaffee	['kafɛ]		

제약 (5)는 음운단어의 오른쪽 끝이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칠수 없음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제약의 적용범위를 음운단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음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약의 적용범위를 음절로 보아 음절의 오른쪽 끝이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vgl. Vennemann 1982, Wiese 1988, Yu 1992, Ramers 1992, Wiese 1996). 이렇게 본다면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상의 제약은 비단 단어끝 음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중간의 음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의 보기에서 처럼 모음과 모음이 인접할 때 첫째 모음이 이완된 단모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도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7) 모음충돌 (Vokalhiatus)

a. Museum	[muze:ʊm]	b. mäh+e	[mɛ:ə]
Poet	[poe:t]	Chaos	[ka:ʊs]
Diät	[diɛ:t]	naiv	[nai:f]
Droh+ung	[dro:ʊŋ]		

*Droh+ung*이나 *Poet*에서 보이듯이 모음충돌 [o:ʊ]나 [œ:]는 허락되나 [ɔʊ]나 [ɔ e:]는 허락되지 않는다. 음운단어의 오른쪽 끝이 아니라, 음절의 오른쪽 끝이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칠수 없다면, 모음충돌에서 나타나는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상의 제약이 설명될 것이다.

Hall(1997)은 그러나 제약(5)의 적용범위가 음절이 아니라, 음운단어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기능어(function word)에 속하는 대명사, 관사, 전치사등의 음성형태를 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어에서 이들은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의 두가지 음성형태를 보인다.

(8) a. 대명사

	강한 형태	약한 형태
du	[du:]	[dʊ] 혹은 [dø]
sie	[zi:]	[zɪ] 혹은 [zø]

b. 관사

der	[deːɐ̯]	[de]
die	[diː]	[di] 혹은 [dɐ]
c. 전치사		
zu	[tsuː]	[tsʊ] 혹은 [tsə]

강한 형태에 비해 약한 형태는 독일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음운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소단어가 되기 위해선 두 개의 모라를 가져야 하는데 (위의 Ft-Bin 제약), 위의 약한 형태들은 한 개의 모라를 가지고 있다. Hall은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가 보이는 이 차이를 두 형태의 운율적인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강한 형태를 포함하여 한 개의 어휘단어 (lexical word)는 동시에 한 개의 음운단어임에 반해 기능어의 약한 형태는 한 개의 음운단어가 아니다. 그리고 독일어의 운율구조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형제약들 (Wohlgeformtheitsbedingungen)은 오직 음운단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Hall의 분석에 의하면 (8)의 약한 형태들이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제약 (5)는 음운단어가 이완된 단모음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능단어의 약한 형태는 음운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완된 단모음으로 끝날 수 있다. Hall은 위의 제약 (5)를 음운단어가 아닌 음절에 관한 제약으로 바꿀 경우, 즉 *[-tense, -low, -long])₀ 대신 *[-tense, -low, -long])_σ으로 할 경우, 위의 기능단어의 약한 형태는 이 제약을 위반하므로, 왜 오직 이 기능단어의 약한 형태만이 이 제약에 대한 예외가 되어야하는지가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Hall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7)에서처럼 어휘단어내의 VV 분절음에서 보이는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제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약이 불가피하게 된다.

(9) Lax Vowel Hiatus Constraint: *([...[-tense, -low, -long] [-cons]...])₀

(9)의 제약은 (5)와 함께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상의 제한이 음운단어에 적용되는 제약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제한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것이 직접 음운단어에 적용되는 제약이라기 보다 단어강세에 관한

제약들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음절 단어가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칠 수 없는 것은 위에서 말한 최소단어의 요구 때문이다. 즉 한개의 문법단어는 한 개의 음운단어이며, 한 개의 음운단어는 음보 이분지 제약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1음절의 단어가 모음으로 마칠 경우, 이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모라를 가져야 하고, 두 개의 모라를 가진 모음은 긴장된 모음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완된 단모음이 열린 음절에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단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긴장된 모음은 자기 홀로 음절의 Reim을 형성할 수 있음에 반해, 이완된 단모음은 자기 홀로 음절의 Reim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발음부호에서 [ɔ]와 [ɛ]는 이 자음들이 양음절적 (ambisilbisch)임을 표시함) .

- (10) a. Otto [ɔtɔ], * [ɔ.to]
 Kaffee [kafe:], *[ka.fe:]
 b. Día [di:a]
 Oáse [o.a:zə]

(10a)에서 강세 받는 첫째 음절이 열린 음절이 될 수 없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되면 음보의 핵은 두 개의 모라를 가져야하는 Head 제약 (vgl. Féry: 1997)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완된 단모음은 다음의 (양음절적) 자음과 함께 음절의 Reim을 이루어야한다.

모음충들의 경우 VV에서 첫째 모음이 이완된 단모음이 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단어강세에 관한 제약의 결과이다. Oáse [o.a:zə]에서 *[ɔ.a:zə]가 될 수 없는 것은 (10a)의 양음절적 분절음에서처럼 단어강세와 관련된 다음 제약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vgl. Féry: 1997):

(11) Bimoraicity (=BIMOR)

완전 모음이 있는 음절은 최소한 두 개의 모라를 가진다.

(12) Moraicity

한 개의 음절내에서 음절핵 다음에 오는 분절음은 한 개의 모라가 된다

제약 (11)와 (12)는 Schwa 모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모음을 음절핵으로 하는 음

절은 최소한 두 개의 모라를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제약에 의해 Otto가 *[ɔ.to]로 될 수 없고, Oáse가 *[ɔ.a:zə]로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수 있다. 다음의 표를 보라.

(13)

a. *Otto*

$\begin{array}{ccc} \mu & \mu & \mu \\ & \vee & \\ \text{ɔ} & \text{t} & \text{o} \end{array}$	Moraicity	BIMOR
<p>a.</p> $\begin{array}{ccc} \mu & \mu & \mu \\ & \vee & \\ \text{ɔ} & \text{t} & \text{o} \end{array}$		*!
<p>b.</p> $\begin{array}{cccc} \mu & \mu & \mu & \mu \\ & & \vee & \\ \text{ɔ} & \text{t} & \text{o} & \end{array}$		

b. *Oáse*

$\begin{array}{cc} \mu\mu & \mu\mu \\ \vee & \vee \\ \text{o} & \text{a z ə} \end{array}$	Moraicity	BIMOR
<p>a.</p> $\begin{array}{cc} \mu & \mu\mu \\ & \vee \\ \text{o} & \text{a z ə} \end{array}$		*!
<p>b.</p> $\begin{array}{cc} \mu\mu & \mu\mu \\ \vee & \vee \\ \text{o} & \text{a z ə} \end{array}$		

기저형태에서 이완된 단모음은 한 개의 모라를 가지고 있고, 긴장된 모음은 두 개의 모라를 가진다. 독일어의 모음의 변별자질을 모음의 장단으로 볼것인지 혹은

긴장도로 볼것인지는 오래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규칙에 입각한 이론에서는 이 두가지 중 한 개를 기저형태의 변별자질로 보고, 다른 한 개를 규칙에 의해 도출해 낸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독일어의 강세를 설명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Féry (1997)는 장단이나 긴장도 대신 음절무게를 나타내는 모라가 모음의 기저형태의 변별자질로 되어야 하며, 긴장도는 단어강세에 의한 음절무게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Yu (2001a)에서 독일어에서 두 개의 모음의 연속이 두 개의 모음으로 실현될때와 이중모음으로 실현될 때의 차이가 기저형태의 변별자질을 모라로 볼 때 합리적으로 설명될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뿐만 아니라 모음과 활음의 교체를 보이는 경우 (예: *Radio* 의 두가지 변이형태인 [ra.di.o]와 [ra.ɔi.o]에서 모음 [i] 와 활음 [i:]는 기저형태의 모라가 음절에 편입될수 있는가의 여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수 있다 (자세한 것은 Yu 2001b를 참조하라).

(13a)에서 후보 (a)는 음성형태 [ɔ.to]로서 첫째 음절이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치는 열린 음절이다. [t]가 [ɔ]와 동일한 음절에 있지 않으므로 Moraicity 제약을 위반하진 않으나, 첫째 음절이 한 개의 모라만 가지므로 BIMOR 제약을 위반한다. 이에 반해 후보 (b)는 음성형태 [ɔto]로서 첫째 음절이 양음절적인 [t]로 마치므로 (즉 [t]와 [ɔ]가 동일음절에 속하므로), Moraicity 제약과 BIMOR 제약을 모두 충족시키고, 따라서 최적형태가 된다.

모음충돌에서도 BIMOR 제약의 위반은 치명적이다. (13b)에서 후보 (a) *[ɔ.a:zə]는 기저형태의 두 개의 모라를 가진 긴장된 모음 [ɔ]가 한 개의 모라를 가진 이완된 단모음 [ɔ]로 되어 첫음절이 이 모음으로 마치기 때문에 BIMOR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또 동시에 Max-IQ_μ 제약을 위반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첫째음절이 긴장된 모음으로 마치는 후보 (b)가 최적형태가 된다.

결론적으로 어휘단어내의 VV 분절음이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할때 첫째 V가 이완된 단모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단어강세를 설명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필요한 위의 제약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Hall이 제안한 위의 제약 (9)는 잉여적이며,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적인 제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제약은 이 제한이 실지로는 단어강세의 규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제안한 제약 (5) Lax Vowel Constraint: *[-tense, -low,

-long]) ω 도 잉여적이다. 왜냐하면 이 제약은 단어강세를 설명하는 보다 더 기본적인 제약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음운단어가 1음절일 때는 두 개의 제약, 즉 GrW=PhW 와 Ft-Bin에 의해 2개의 모라를 가져야하는 최소단어의 요구 때문에 이 음운단어는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칠수 없다. 한편 2음절 이상의 음운단어 내에서 이완된 단모음으로 마치는 열린음절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두 개의 제약, 즉 Moraicity 와 BIMOR의 상호작용의 결과 때문이다. 따라서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상의 제한의 본질은 개별적인 음소분포제약 (Phonotaktische Constraints)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어강세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Hall이 Lax Vowel Constraint을 *[-tense, -low, -long]) ω 대신 *[-tense, -low, -long]) σ 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사라진다. 왜냐하면 제약 *[-tense, -low, -long]) ω 을 단어강세와 관련된 보다 근원적인 제약들 (elementäre Constraints)로 책임을 돌린다면 이 제약이 *[-tense, -low, -long]) σ 제약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오직 기능단어의 약한 형태만이 제약 *[-tense, -low, -long]) σ 의 예외가 되어야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 제약 *[-tense, -low, -long]) ω 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Hall 역시 기능단어는 음운단어가 아니라는 가정을 통해서만 기능단어의 약한 형태가 제약 *[-tense, -low, -long]) ω 의 예외라는 부정적인 증거 (negative Evidenz) 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단어의 음성형태는 위에서 보았듯이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의 두가지 변이형을 가지고 있고, 강한 형태는 보통의 다른 어휘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제한을 보이므로, 이 두가지 변이형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최적성이론에서 가정하는 제약간의 랭킹의 차이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것이다. 약한 형태는 한 개의 모라만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Align 제약을 지켜야한다.

(14) Align-R (μ , Wort)

이 제약에 의하면 모든 모라의 오른쪽끝과 단어의 왼쪽 끝은 일치해야한다. 따라서 한 개의 모라를 가진 약한 형태에서는 이 제약이 충족되나, 두 개의 모라를 가진 강한 형태에서는 이 제약이 위반된다. 약한 형태에서는 최소단어의 요구인 BIMOR 제약을 지키는 것보다 Align-R 제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 강한 형태

에서는 최소단어의 요구가 Align-R 제약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능단어의 두가지 음성적 변이형은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제약 랭킹에 의해 결정된다. √ 표시는 제약이 충족되었음을, * 표시는 제약의 위반을 각각 나타낸다.

(15) a.	강한 형태:	BIMOR	>>	Align-R
	[du:]	√		*
b.	약한 형태:	Aling-R	>>	BIMOR
	[dʊ]	√		*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의 차이를 전자는 한개의 음운단어를 형성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일어의 음운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들이 두가지 음성형태 (강한형태와 약한 형태) 에서 서로 다른 랭킹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적인 제한이 실지로는 단어강세와 관련된 규칙성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완된 단모음에 관한 두 개의 분포제약 (5)와 (9)가 비록 출력부에 기초한 제약이긴 하지만, Hall의 제안은 표준적인 최적성이론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 제약은 모두 어길수 없는 제약들이고, 잉여성은 바로 이 어길수 없는 제약의 성질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된 것처럼, 표준 최적성이론에 따라 모든 제약은 위반될수 있고, 최적형태는 제약들간의 랭킹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면, 이런 잉여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이완된 단모음의 분포적인 제한과 단어강세의 규칙성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3. CVCV 어간

독일어에서 주어휘범주에 속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어근은 전형적으로 1음절이며, 2음절인 경우는 두 번째 음절이 대부분 Schwa-음절인 것으로 한정된다. 1음절 어근의 경우 음절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자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Golston/Wiese (1998)는 독일어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어근은 CVC 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장에서는 CVC 어근이 BIMOR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최소 단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근의 음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 보기들에서 어근 CVC는 두 개의 모라를 가지므로 BIMOR 제약을 충족시키거나 Schwa 모음이 결합하여 2음절 CVCV의 어간으로 실현된다.

(16) a. Schwa로 끝나는 명사

End+e - end+lich

Lieb+e - Lieb+ling

Ros+e - Rös+chen

Glaub+e -glaub+würdig

b. Schwa 로 끝나는 형용사

träg+e - Träg+heit

bös+e - bos+haft, bö+artig

feig+e - Feig+ling

trüb+e - Trüb+heit, Trüb+nis, Trüb+sal

müd+e - Müd+igkeit,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이 보기들의 Schwa를 의사접미사 (Pseudosuffix) 혹은 어간형성소(stammbildendes Element)라고 칭하며, Schwa에 하나의 형태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feige* 와 같은 단어의 형태적구조가 *feig+e* 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16)의 단어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연결형태론 (verkettende Morphologie)에서 보는 보통의 접사화과정에서 생겨난 파생어 (예: *Kind+isch* -> *kindisch*)와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kind+isch*에서 접미사 *+isch*는 순수히 형태적인 과정에 의해 접미사가 어근에 추가 되었음에 반해, (16)에서 어간형성소 Schwa 는 순수히 형태적인 과정에 의해 Schwa 가 어근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형태적인 요인과 음운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비연결형태론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문법에서 왜 의사접미사에 형태소 자격을 부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6)의 어간 말 Schwa 뿐 아니라, 전통

문법에서는 다음에 있는 명사 복수형들에서 나타나는 어간말 Schwa-음절 *-el*, *-en*, *-er* 등도 의사접미사로 간주한다.

(17)	단수	복수
	Filter	Filter
	Vater	Väter
	Onkel	Onkel
	Segen	Segen
	Beben	Beben

위의 강변화 남성, 중성명사들은 복수형태에서 복수접미사가 붙지 않는다.

Augst(1979)와 Köpcke (1993)는 이런 명사들을 ‘의사 접미사’ *-el*, *-er*, *-en* 로 마치는 명사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의사 접미사를 가정하는 이유는 이 명사들의 복수형에서 접미사가 붙지 않는 것이 동음반복금지현상 (Haplologie)과 관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어간의 일부와 음성적으로 동일한 접사가 결합하거나, 동일한 형태소의 기능이 두 개의 형태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므로 (**honig+ig*, **Zauber+er+in*), 의사접미사가 복수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 접미사라고 볼 때 또 다른 복수 접미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Köpcke (1993:105)는 위의 복수형태의 예외를 들고 있다: *-el* 로 끝나는 명사는 예외적으로 복수형태에서 *-n* 이 붙을수 있지만 (*Muskel+n*, *Stachel+n*, *Friesel+n*, *Treidel+n* etc.), *-er*로 끝나는 명사에서는 *-n* 이 붙는 예외가 없다 (**Vät+er+n*). Köpcke 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일어에서 *-el* 은 형태상 복수접미사가 될 수 없으므로 *-n*이 올수 있지만 *-er* 는 형태상 복수접미사가 될 수 있으므로, *-n* 접미사가 결합하면 복수 접미사가 이중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의사 접미사의 형태적인 기능이 불분명한 점이다: *Vater*의 *-er*가 복수기능을 가진 접미사라면, **Zauber+er+in*에서 의사 접미사 *-er*는 동음반복금지현상의 측면에서 사람 여성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음성형태와 형태적인 기능이 한 개로 고정되어 있는 접미사(예: *+bar*, *+haft*, *+chen*)의 성질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접미사의 음성형태는 일반적으로 예측 불가능함에 반해 의사접미

사는 부분적으로 (Schwa-모음) 예측가능하다.

셋째, Plag (1998)이 밝히고 있듯이, 동음반복금지현상은 순수하게 음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형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18) 동음반복금지

(a) 기저형태 /zaub/+r/+r/+r/+in/ (Zauber+er+in->Zauberin,*Zaubererin)

Kandidaten	OCP (nucleus)	Comp Ons	Max	OCP (onset)
Zau.be.rin			*	
Zau.be.re.rin	*!			*
Zau.bre.rin		*		

(b) 기저형태: /far/+r/+r/+in/ (Fahr+er+in -> Fahrer, *Fahrin)

Kandidaten	OCP (nucleus)	Comp Ons	Max	OCP (onset)
Fah.re.rin				*
Fah.rin			*!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Zaubererin 과 *Fahrin이 최적형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동일 음절핵을 금지하는 제약인 OCP(nucleus), 동일음절초성을 금지하는 제약인 OCP(onset), 음절머리가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Comp Ons 제약, 그리고 입력부의 분절음의 삭제를 금지하는 Max 제약과 같은 순수 음운적인 제약들이 다음과 같은 랭킹을 보이기 때문이다: OCP(nucleus) >> Comp Ons >> Max >> OCP (onset).

이와 같은 이유로 (17)의 명사 복수형에서 보이는 의사접미사는 형태적인 과정에 의해 첨가된 보통의 접미사로 볼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16)의 CVCV의 어간말 Schwa도 연결형태론의 조어과정에 의한

접미사의 첨가로 볼 수 없다. Yu (2001c)에서 밝혔듯이 여기서 어간말 Schwa가 첨가되는 것은 독일어에서 어근이 1음절이 되어야하는 제약과 구조적인 적형제약 (strukturelle Wohlgeformtheitsbedingung)과의 충돌의 결과이다. 즉 *feige*, *Ende* 등에서 Schwa가 나타나는 이유는 음절말에 유성음이 나타날 수 없는 제약과 어근 말 저해음의 유성자질 [+voiced]이 변해서는 안되는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설명의 편의상 이 제약들을 비형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설명은 Yu 2001c를 참조하라).

- (19) a. 1음절 어근 제약: 독일어의 주어휘범주 (명사, 형용사, 동사)에 속하는 어근은 1음절 CVC 형태이다.
 b. Coda-Condition: 독일어에서 음절 Coda 에 있는 저해음은 무성음이다.
 c. IDENT-IO[voiced]: 입력부와 출력부의 [voiced] 자질값은 동일해야 한다.
 d. Max-IO: 입력부에 대응되는 분절음이 출력부에 있어야 한다 (탈락 금지)
 e. Dep-IO: 출력부에 대응되는 분절음이 입력부에 있어야 한다 (삽입금지)

이에 따라 기저형태가 유성저해음으로 마치는 1음절 어근 *End*의 경우는 Schwa가 삽입되나, 무성저해음으로 마치는 1음절 어근 *reif*의 경우는 Schwa가 삽입되지 않는다.

(20) 1음절 어간과 2음절 어간의 비교

a. End+e (Input 이 [[end]Wurzel]Stamm 인 경우)

Input: End /end/	Coda- Cond.	IDENT- IO[voice]	Max-IO	1음절 어근	Dep- IO
a. end	*!				
b. endə				*	*
c. ent		*!			
d. en			*!		

b. reif

Input: reif /raif/	Coda- Cond	IDENT- IO[voice]	Max-IO	1음절 어근	Dep-IO
a. raifə				*!	*
b. rar			*!		
c. raif					

(20a)에서 후보 (a), (c), (d)는 모두 1음절이며, 자음으로 마치고, 또 삽입분절음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표 (14)의 1음절 어근제약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후보 (a)는 Coda-Condition을 위반하고, 후보 (c)는 Input의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바뀌었으므로 IDENT-IO[voiced]를 위반하고, 후보 (d)는 문제가 되는 어근말 /d/를 아예 탈락시킴으로써 [voiced]에 관한 두 개의 제약들은 진부하게 충족시키나 Max-IO를 위반한다. 이들 세 개의 후보가 각각 위반하는 모든 제약들은 따라서 최적형태가 위반하는 제약들인 1음절어근 제약과 Dep-IO 제약보다 상위에 랭크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reif에서는 Schwa 삽입이 [voiced]에 관한 두 개의 제약인 Coda-Condition과 IDENT-IO[voiced]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reif 는 1음절어간으로 실현된다.

4. 형태소 실현과 단어의 운율구조

독일어에서 주어휘범주에 속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어근 혹은 어간은 대부분 1음절 (Buch, schön, reis+en) 이거나 아니면 2음절이며, 2음절인 경우는 대부분 완전모음이 핵인 첫째 음절과 Schwa 모음이 핵인 두 번째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예: Himmel, dunkel, atm-en) (vgl. Golston/Wiese 1998). 어근의 이런 운율구조는 단어의 굴절형태의 운율구조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일어의 굴절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Schwa 모음으로서 명사나 형용사, 동사의 굴절형태는 대부분 Schwa 모음이 있는 굴절형태를 만들며, 이의 예외는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명사의 복수 접미사 -s, 동사의 현재 단수 2인칭 접미사 -st, 3인칭 접미사 -t).

따라서 어근 혹은 어간에 형태적인 기능을 갖는 굴절접미사가 결합할 때 다음과 같은 굴절형태의 운율구조가 예상된다. (이하에서 $\sigma(\alpha)$ 는 Schwa 모음이 음절핵인 음절을 표시함).

(21) a. 1음절 어근 혹은 어간 + $\sigma(\alpha)$ -> 2음절

(예: Buch + er -> Bücher, schön + e -> schöne, geh + e -> gehe)

b. 2음절 어근 혹은 어간 + $\sigma(\alpha)$ -> 3음절 어간

(예: Abend + e -> Abende, locker + er -> lockerer, atm + e -> atme)

위의 예는 굴절접미사인 Schwa 음절어 어근에 추가됨으로써 굴절형태의 음절수가 하나씩 증가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굴절형태는 원래의 어기와 형태, 통사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명사의 단수/복수, 동사의 인칭, 시제, 수, 형용사의 성과 격) 굴절접미사를 통해 그것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것을 보장해 주는 제약이 형태소 실현제약이다.

(22) Realisiere Morphem (=RM)

모든 기저형태의 형태소는 음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제약을 보다 형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23) α 는 하나의 형태소이고 β 는 형태통사론적인 범주이다.

$F(\alpha)$ 는 음운적인 형태이며, 이로부터 형태통사론적인 범주 β 를 나타내는 $F(\alpha + \beta)$ 가 도출된다고 할 때 RM은 오직 $F(\alpha + \beta)$ 가 음운적으로 $F(\alpha)$ 와 다를 때만 충족된다. (주의: β 는 본질적으로 형태통사적인 범주를 나타내나 α 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기와 형태통사적으로 다른 굴절어에서 언제나 굴절접미사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17)의 복수형태 (*Filter, Onkel, Segen*)에서 보듯이 여기서는 복수를 나타내는 굴절접미사 (-s를 제외한 $\sigma(\text{ə})$)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dunkel* 과 같은 2음절 어간의 형용사의 어미변화에서 볼수 있듯이 (*dunkl+er* -> [dʊŋ.klɐr], *[dʊŋ.kələr]) 굴절접미사인 $\sigma(\text{ə})$ 가 언제나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Abend - Abend+e, Onkel - Onkel*의 단수/복수형태를 비교해 보면 RM 제약이 위반될수 있으며, 이 위반은 다른 중요한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만 허락됨을 알수 있다. 다음 표를 보라.

(24)

a. *Abende, *Abend*

Abend+복수	Coda-Cond.	IDENT-IO [+voiced]	OCP (nucleus)	RM
a. a:bəndə			*	
b. a:bənd	*!			*

b. *Onkel, *Onkele*

Onkel+복수	IDENT-IO [+voiced]	OCP (nucleus)	RM
a. ɔŋkəl			*
b. ɔŋkələ		*!	

*Abend*나 *Onkel*은 둘 다 어기가 완전음절 + Schwa 음절로 된 2음절 어간이지만 전자에서는 복수형태소가 음성적으로 실현되고 (즉 RM제약이 충족되고)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개의 Schwa 음절의 연속을 피해야하는 것이 형태소를 음성적으로 실현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OCP(nucleus)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더 상위 제약인 Coda-Cond.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결국 2음절

어간이 어기인 경우 굴절형태의 음성적 실현여부는 표 (24)의 랭킹제약으로부터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1음절어근이나 어간의 굴절형태에서는 원칙적으로 RM 제약이 위반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어의 1음절어근이나 어간은 한 개의 완전모음을 음절핵으로 하기 때문에 (즉 최소단어의 요구로부터 CaC 형태의 1음절 어근이나 어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Schwa 음절의 굴절접미사가 어간 다음에 오더라도 여기서는 OCP(nucleus)가 위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RM 제약을 위반할 필요도 없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소단어와 관련된 제약들이 독일어의 운율구조를 결정짓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완된 단어모음의 분포적 제약과 모음충들은 한 개의 음운단어가 최소한 두 개의 모라를 가져야하는 최소단어에 대한 요구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최소단어에 대한 요구는 독일어에서 가장 보편적인 1음절 어간타입 CVC에서 충족된다. 그러나 CVCV로 된 2음절 어근이나 어간타입에서는 최소단어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어간형성소 혹은 의사접미사인 Schwa 음절이 첨가된다. 이런 Schwa 음절은 그 형태적 기능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음반복금지현상에서 볼수 있듯이 순수히 음운적인 요인에 의해 Schwa 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사화과정에서 여기에 첨가되는 접미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feige* 등에서 나타나는 어간말의 Schwa는 입력부의 저해음의 유성의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Schwa 음절의 형태적인 기능이 분명한 굴절형태에서 이 Schwa 음절의 음성적 실현여부는 형태소 실현제약과 다른제약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유시택 (2001a) 독일어에서 모음충돌과 이중모음. *독어교육* 22집, 195-218.
- 유시택 (2001b) 독일어에서 모음과 활음의 교체. *독일언어문학* 16집, 25-48.
- 유시택 (2001c) 독일어에서 어간형성소로서의 Schwa.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8집, 195-224.
- Caroline Féry: "The mora as a measure of weight and a syllabic constituent" In: *Certainem Phonologicum III. Papers from the Third Cortona Phonology Meeting, April 1996*. Edited by Pier Marco Bertinetto, Livio Gaeta, Georgi Jetchev, David Michaels. Torino: Rosenberg & Sellier, 1997. 91-110.
- Golston, Ch./R. Wiese (1998) The structure of the German root. In *Phonology and Morphology of the Germanic languages*, Wolfgang Kehrein; Richard Wiese (Eds.), 165-185.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Hall, T.A. (1992): *Syllable Structure and Syllable-related Processes in German*. Tübingen: Niemeyer.
- Hall, T.A. (1999) "Phonotactics and the Prosodic Structure of German Function Word", in: Hall, T.A./U. Kleinhenz (eds.) *Studies on the phonological wor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9-132.
- Kloeke, W.U.S. van Lessen (1982) *Deutsche Phonologie und Morphologie: Merkmale und Markiertheit*. Tübingen: Niemeyer.
- McCarthy, J.J. & A.S.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University fo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ity, New Brundwick, N.J.
- Moulton, William G. (1962) *The Sounds of English and Ger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rince, A. & P.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and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Reis, Marga (1974) *Lauttheorie und Lautgeschichte: Untersuchungen am Beispiel der Dehnungs- und Kürzungsvorgänge im Deutschen*. München: Fink.
- Ramers, K.H. (1988) *Vokalquantität und -qualität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Wiese, R. (1988) *Silbische und lexikalische Phonologie. Studien zum Chinesischen*

- und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Wurzel, W.U. (1970) Studien zur Deutschen Lautstruktur (Studia Germanica VIII). Berlin: Akademie-Verlag.
- Yu, Si-Taek (1992) *Unterspezifikation in der Phonologie des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Linguistische Arbeiten 274)

Zusammenfassung

Die Rolle des minimalen Wortes für die prosodische Struktur des Deutschen

Si-Taek Yu (Chungnam Nat'l Univ.)

Die meisten Wörter im Deutschen, die zur lexikalischen Hauptkategorie gehören, erfüllen die prosodischen Bedingungen, dass sie ein phonologisches Wort bilden und dass ein phonologisches Wort zumindest aus zwei Moren besteht.

In dieser Arbeit wird gezeigt, welche Konsequenzen diese Constraints für die prosodische Gestalt der deutschen Wörter haben. Eine davon bezieht sich auf das Phänomen, das in der Literatur als "minimales Wort" bekannt ist. Die distributionellen Beschränkungen eines ungespannten kurzen Vokals im Deutschen sind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ein prosodisches Wort mindestens zwei Moren enthalten muss.

Die Forderung nach einem minimalen Wort wirft aber die Frage, warum ein Stamm wie *feige* eine zweisilbige Struktur CVCV mit einer finalen Schwasilbe aufweisen, ein Stamm wie *reif* dagegen eine einsilbige Struktur CVC. Allein die Forderung nach einem zweimorigen prosodischen Wort würde auch eine ungrammatische Form wie *feig* erfüllen. Bei Formen wie *feige* ist festzustellen, dass das Constraint IDENT-IO[voiced] wichtiger als das Constraint ist, das einen einsilbigen Stamm verlangt. Eine Analyse, in der die finale Schwa-Silbe in einem CVCV-Stamm als ein stammbildendes Element oder Pseudosuffix aufgefasst wird, kann diese Interaktion zwischen Constraint nicht erfassen.

Im Vergleich dazu zeigen die zweisilbigen Flexionsformen, bei denen Schwa-Silben als ein echtes Suffix fungieren, dass das Constraint "Realisiere Morphem" nur dann verletzt werden kann, wenn es zur Erfüllung des höher rangierten Constraints OCP(nucleus) dient. Dieses Constraint ist seinerseits nur dann verletzbar, wenn damit das höhere Constraint Coda-Cond. erfüllt werden kann.

[검색어] 최소단어, 음운단어, 형태소 실현

Minimales Wort, Phonologisches Wort, Realisierung eines Morphems